

설 명절 가정예배 가이드

묵상기도 ————— 묵상 기도 드림으로 설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같이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대표기도 ————— 가족중(뒷면참조)

성경봉독 이사야 49:8~10 인도자

- 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9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 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설 교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 ————— 가족중(뒷면참조)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격려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예문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절대 잊지 않았다”라고 보내신 따뜻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이 올 한 해 꼭 불들어야 할 세 가지 약속을 나눕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알맞은 ‘도움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란 우리가 무언가 특별히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기적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10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며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또한 ‘샘물 근원’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행복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세상을 따라 가느라 지치기보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걷길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던 익숙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 가라는 초대입니다(9절).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서로를 비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익숙함 속에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축복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용기 내어 “하나님이 네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길 바란다”라고 서로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을 전해보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나누는 음식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